

전라감영 책판 문화사적 가치 조명

전북대 박물관서 학술대회

“세계에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 기록유산에 등재해야”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소장·관리하고 있는 전라감영 책판(11종 5,058개)은 200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로 지정된 전북 대표 기록문화유산이지만 그동안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라감영은 경상감영과 더불어 조선 후기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지였는데, 당시 감영에서 책을 인쇄할 때 사용했던 책판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전라감영 책판이 유일한 사례기에 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소중한 지역의 기록문화유산인 전라감영 책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학술대회가 지난 12월 1일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북대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이 주최하고, 전북대 박물관과 전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전북대 개교 70주년과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원형책판 학술대회가 열린 것.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라감영 책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관각본(官刻本) 책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대 인문역량강화사업추진단이 주최하고, 전북대 박물관과 전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전북대 개교 70주년과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원형책판 학술대회가 전북대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원판본 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인 이태영 전북대 교수(국어국문학과)와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각각 '원형책판과 전라감영의 인쇄문화', '조선전기 책판 목록과 감영의 책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북 지역의 우수한 인쇄문화와 역사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태영 교수는 “조선시대 지방 기록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라감영의 출판문화는 국내를 넘어 세계에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전라감영 책판과 고문서, 원판 방각본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제안해 관

심을 끌었다. 또한 홍성덕 전주대 교수는 '원형책판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통해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전라감영 책판의 가치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대 규장각 권기석 학예연구사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소희 연구원, 그리고 한국학진흥원 김종진 전문연구원 등이 규장각 소장 책판과 충청감영 책판, 경상감영 책판 등에 대해 발표해 전라감영 책판과 타 지역의 책판 특징 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원판본문화관이 후원한 이

날 행사에서 대경문화대학교가 운영하는 원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원판본 맥(脈) 잇기'라는 테마로 전시, 판각 시연, 체험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책판의 등재본 부착, 판각 도구, 목판 인쇄, 간행 등 책판의 전반적인 제작과정을 전시하고, 각수가 책판에 글을 새기는 모습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전통 판각시연을 선보였다. 또한 체험에서는 참석자들이 목판으로 인쇄를 해 볼으로써 과거 원형책판을 통한 목판인쇄의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상민 기자

국악영재원 수료식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지난 2일 '제3기 국악영재원' 수료식 및 발표회를 열었다.

'국악영재원'은 박 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진행된 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7명의 국악영재를 선발해 진행됐다.

이들 수료생들은 지난 23주 동안 전북 무형문화재 제2-13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박양덕 명창에게 민요를 비롯한 판소리를 지도 받았다.

또한 지기학 예술감독과 서은기 수석에게서 각각 국악이론-장곡및보기 수업과 판소리 장단인 고법을 지도받으며 소리꾼으로서의 초석을 다졌다.

수료생들은 수료식 후 가진 발표회에서 사설가, 흥보가 등 톤타령, 함양양장가, 이어도사나를 선보였다. 아이들은 작은 고사리 손에 든 부채로 발림과 소리를 한껏 뽐냈다. /정해은 기자

인간미 넘치는 삶에서 미소 짓기를...

유도형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전북지회장이 일상에 대한 사색을 26편의 이야기에 담았다.

산문집 '똥개는 짚어도 열치는 간다' (문예원)는 저자가 매체에 연재한 '세상사는 이야기'에 10여 편을 추가해 묶은 것이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각의 폭포를 틀며 그에 대한 신념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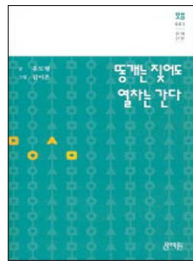
표제작 '똥개는 짚어도 열치는 간다'에선 남을 시기하고 험담하면 그 폐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세상사의 이치를 상기시킨다.

또 '효도랍시고'에는 친정엄마에 대한 애뜻함이 묻어난다. 평소에는 서글서글하고 팔팔한 성격이 지닌 여성 경영자의 면모를 보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살가운 딸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신간도서 - 유도형 '똥개는 짚어도...'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부모인 것들... 자식이 내내 봉양하려 한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나. 그러므로 돌아가신 뒤에 소를 잡아 제사 지냈보다 차라리 생존해 계실 때 잘해드려야 할 텐데...'라는 생각에, 그는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위해 효도관광에 나선다. '하루 정도 짧은 시간 함께 한 것뿐인데도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와 그리고 '도형야! 이 달에는 어디로 놀러 가?'며 설렘을 표하는 그의 어머니 모습은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낸다.

그는 "세상살이의 각박함에 시달리는 씁쓸함보다는, 인간미 넘치고 화기애애



한 삶의 모습들에서 한번 씩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을 수 있길 바란다'며 출간 소회를 밝혔다.

저자는 전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이다. 현재 (주)한올테크 회장 겸 신유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오는 8일 오후 2시 트윈호텔 백제홀에서 신간집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연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만 18세 이상 300여명...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가 내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갈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프로그램팀, 홍보미디어팀, 마케팅팀, 기획운영팀, 관객서비스팀, 총무지원팀 등 총 6개 팀 26개 분야로 모두 300여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18세 이상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영화제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영화제 기간 중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2018년 1월 15일까지며, 지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모집 홈페이지(<http://volunteer.jiff.or.kr>)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1월 19일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 면접심사를 거쳐 2월 14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소설가협회 '소설전북' 21호 출판기념회

전북소설가협회(회장 정영신)는 '소설전북' 21호 출판기념회 및 '제4회 소설 낭독회'를 오는 9일 11시 '문화공간 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출간된 '소설전북' 21호에는 21세기 IT시대에 즈음한 인쇄매체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인 소설의 소외현상과 진정한 작가정신을 반추해 보는 정영신 회장의 머릿글 '오늘 내가 남루할지라도 그대 나 소설을 사랑하는가?'에 이어 특집 원로작가 초대석에는 운영근 1대 회장의 '우리 동네 편자 선생'이 게재 되었다.

또한 제6회 전북소설문학상을 수상한 김상희 박사의 '추사의 숨은 꽃'과 김명희, 김중선, 김한창, 노령, 박이선, 박종식, 이은정, 정영신, 한정원 회원의 소설작품이 실려 있다.

이와 함께 채만식, 최일남, 홍석영, 윤홍길, 최명희, 양귀자 등 전북출신 대표 소설가로부터 운영근, 최정주, 황용수, 김상희, 노령, 김한창 등에 이르는 향토문단 풍인인 전북소설가협회 작가들의 출신지와 출신학교·등단지명·저술 작품들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특집으로 꾸며진 '전북 소설문학의 발자취'에선 25년에 이르는 전북소설가협회의 소사를 소개하고 있다.

정영신 회장은 "이번 '소설전북' 21호는 문인들은 물론이고 전북의 소설문학사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이 먼 후일에도 이 지역의 향토 문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